

# 도, 지역발전 견인 SOC 현안 본격 시동

노을대교·전주~김천 철도 장기 숙원사업 해점 추진  
공항·인입철도·도로망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박차  
하천 수해예방·도로안전 확보·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 추진

전북도가 올 한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며,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도 건설교통국은 27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도로망 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방하천 정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 등에 5,774억 원의 예산을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망 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노을대교(8.9km) 포함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7개 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전타당성조사가 본격 추진되는 전주~김천, 달빛내륙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신속 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조기 완성을 위해 공항, 인입철도, 연결도로, 고속도로 등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방하천 정비, 도로안전, 건설현장 안전관리 추진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1,36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37개소), 노인보호구역(10개소), 마을주민보호구역(9개소) 시설 개선과 무인교통단속카메라(132대), 횡단보도신호기(59대) 설치 등 초등학교의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또는 사고우려지역 안

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민간 건설현장(100개소 이상)의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도입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맞춤형 주거급여와 저소득계층 그린리모델링을 확대 추진하고, 신혼부부·청년, 고택자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임대주택 총 3,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헛상가복 노후주택, 주택개발,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 46개소(14개 시·군)에 1,255억 원 투자하며, 올해 13개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헬스케어(DRT) 서비스 확대 및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 올해 98억 원 투자해 행복콜버

스(12개 시·군, 111대)와 행복콜택시(1,342개 마을)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132억 원 투자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확대 추진하며, 김제시의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확충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확충(특별교통수단 32대, 인차택시 50대, 저상버스 39대), 특히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기반 예측 배차와 합승배차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이 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통합 구축과 행정구역 정비로 편리한 도지행정서비스 제공 도로, 하천, 환경 등 분야별 정보를 통합한 공간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한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84개 사업 지구 43,821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속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추진  
전북도가 28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에 속도를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용 확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체계 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강화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개정 계획이다. 도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의 단속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되고,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 법규 준수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된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공문시행 등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 법령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힘써 청정 전북 이미지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2023 새만금잼버리' 서포터즈 활동 본격화

콘텐츠·아이디어 발굴  
잼버리 소식 전파 등 나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이하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알리고,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총 2,358명으로 앞으로 잼버리를 위한 각종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발굴·제공하며, 개인별 SNS에

잼버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파하는 등 세계잼버리 홍보와 범접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서포터즈는 국·지역·연령 별, 직업별 매우 다양하게 이뤄져 있어, 앞으로 전 세계에 잼버리와 스카우트,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서포터즈 활동 개시에 앞서, 서포터즈의 주요 역할, 활동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28일부터 27일까지 이를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소개와 공식 SNS 알림, 연계 등 향후

온라인 홍보에 있어 서포터즈의 주요 역할 활동 중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대륙별로 서포터즈 대표관리자가 선임돼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협의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최창행 사무총장은 "앞으로 서포터즈 한사람 한사람이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나라에서 잼버리와 대한민국을 알린다면, 청소년의 대륙제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대 윤명숙 교수 도 선관위 위원 위촉

전북대학교는 윤명숙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됐다고 27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현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을 위원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 국립대 총장 선거 등을 포함한 모든 선거 및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에도 정치관계 법규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 등 선거 및 정치제도 선진화에도 참여한다.  
/정은성 기자

# 전북체육회, 체육 역사 기념관 추진 학예사 채용

전북체육회는 전북 체육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예사 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은 기간제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정학에서 자격증(3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학예사 관련학과 또는 체육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2년 이상 박물관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채용공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는 2월 16~18일 사흘이다. 학예사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체육회 홈페이지나 마케팅기획과(063-250-84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체육 역사 기념관은 잊혀져 쉬운 전북 체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도,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전북도가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계적 복지지원 시책을 적극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시책 주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에 겸업 여성농업인도 포함,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8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편의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 겸업여성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사업량을 전년 대비 11천명을 늘려 4만5,000명에게 총 68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고품질 여성농업인등의 카드발급에 불편함을 해소 할수 있도록 카드

발급점을 확대해 가까운 면소재지 지역농협을 포함 220개소에서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에 사용이 편리한 다용도파종기를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하고 사업량도 500대 늘려 1,500대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겸업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농규모 제한없이 농촌겨우 여성농업인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를 전년보다 1만 원 높여 8천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 이동수단이교실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1개소가 추가 선정돼 4개소로 사업량을 확대한다.  
/유호상 기자

## 정신질환 응급환자 치료체계 구축

### 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 선정 수행기관에 원광대학교병원 최종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원광대병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시대응 및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 전문병상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체계적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간 정신질환 응급환자 입원·치료는 일선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안이었다. 피해를 시도한 경우 외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병행돼야 하나, 외과병원에서는 '정신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는 '외상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응급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원광대학교병원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존 응급의료센터 내에 정신응급환자 전문병상 2병상 확보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간호사 및 보안인력 등 신규인력 채용을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 개시 예정이다.  
전북도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지난 26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전통시장 방역 및 지방불가 안전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설 연휴 여객선터미널 특별방역 추진

### 전북도, 대합실·객실 코로나 방역수칙 집중점검·홍보 강화

### 도·시·군·유관기관 가족전염병 24시간 방역체계 유지

전북도는 설 명절 여객선터미널에 대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자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가족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해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 및 생활 방역수칙 안내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용객의 발열체온 측정, ▲출입자 명부 관리, ▲개찰구 및 화장실 소독 등이다.  
도는 해수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별도로 설 연휴 특별대책반 구성에 원활한 수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전북도는 연휴 기간 가족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도내 모든 방역기관에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축산 환경·소독의 날'을 설 연휴 전·후인 1월 28일과 2월 3일로 임시 지정한다.  
특히, 철새도래지와 가금 및 양돈밀집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 시·군 소독차량, 드론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도는 지난 28일 전주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방역 및 지방불가 안전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전북상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방역점검은 생활방역수칙 준수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유호상 기자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맞춤형 수업

### 도교육청, 선정학교 10곳 담당교사 대상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취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선정학교 담당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사업 내실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e-book, PDF, 동영상 등)를 활용해 만든 교수·학습 자료를 뜻하는 것으로, 학급 상황이나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교사가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원격수업의 경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유형 및 활용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를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했다.  
선도학교에는 온라인 교과서 수업 지원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1인 1대씩 수준으로 보급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각종 저작도구(Adobe, MS오피스 등)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년여 간 선도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와 이를 적용한 교수·학습 유형이 누적돼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